

# “쌀 작황조사 수확기 이전에 해야”

### 산지농협통합RPC, “재배면적에 대한 통계조사 사전에 실시로 생산조정 나서야” 주장

쌀 생산량 대비 소비량 감소에 따라 재고미 부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생산량 통계를 미리 알아 볼 수 있는 재배면적에 대한 통계조사를 사전에 실시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의 첫 공식 쌀 재배면적 통계조사는 10월 15일 경 발표되는 작황조사를 통해 공개되는데 이미 수확이 시작된 후라는 점에서 생산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연간 2회에 걸쳐 쌀 생산량 조사치를 발표한다.

10월 15일경과 11월 15일경으로 10월 15일경 발표치에서는 예상생산량을, 11월 15일 발표치에서는 확정생산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9월 15일경에도 8월에 실시한 예상작황 조사결과를 발표하다가 생산량 추정치와 최종 생

산량 확정치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산지쌀값 하락과 함께 매년 정부가 신곡수요량 대비 과잉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와 정부재고량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전 생산량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확기 전 생산량 조사치를 바탕으로 정부가 신곡수요량 대비 과잉물량을 수확 전 논에서 처리하지 않고 생산 후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를 할 경우 산지쌀값이 오르는 어렵다.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신곡물량을 정부가 항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따라 수확기 이전 재배면적과 작황조사를 통해 신곡 수요량 대비

과잉이 예상될 경우 일정물량의 벼를 사전에 논에서 사료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쌀 수급조절과 가격 지지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지농협통합RPC 한 관계자는 “과잉된 물량을 논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농협이 벼를 더 사게 되거나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게 된다”면서 “정부의 시장격리도 사실상 농협이 진행을 한다는 점에서 농협의 재고량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밀어내기를 통한 산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을 적정량 생산 여부를 따져 실적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별로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전년도 매입실적, 재

배면적, 수급안정시책평가 결과 등만 고려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올해 초 정한 적정생산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물량 배정을 한 뒤 시도별 벼의 적정생산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사전에 합의된 적정생산량 이하로 벼를 생산하면, 정부가 기존 배정물량보다 더 많은 쌀을 사들이는 인센티브를 준다. 적정생산량을 넘어 쌀이 과잉생산된 지자체의 경우 배정물량을 줄이는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농업인 입장에서는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많이 매입할수록 쌀값 폭락 방지 등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이런 방식을 통해 쌀 적정생산이 유도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인재용 기자



## 사랑 한가득 주먹밥 봉사활동 실시

### 전북은행, 서원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300여명 초청

전북은행은 15일 전주시 중화산동에 위치한 서원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소외계층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제12회 사랑 한가득 주먹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전북은행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역사랑봉사단 기금으로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병용 부행장을 비롯해 인사지원부, 업무지원부, ICT지원부,

WM사업부 등 임직원 20여명은 어르신들에게 점심으로 제공할 주먹밥과 과일을 직접 준비하여 배식봉사활동을 펼쳤고, 식사 후 선물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2015년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도내 사회복지관 12곳에서 '사랑 한가득 주먹밥' 행사를 펼쳐, 도내 2,5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인재용 기자

# 국도 30호선 무주 태권도원 진입도로, 안전도로 탈바꿈

### 익산국토청, 급커브 위험구간 3개소 선형 등 개선

국도 30호선 무주 태권도원 진입도로가 안전한 도로로 새롭게 태어났다. 15일 익산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도30호선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원 진입 위험도로 개선 공사를 최근 준공했다.

태권도원 진입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국도 30호선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에서 청량리에 이르는 구간(1.024km)의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총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5월에 착공했으며, 급커브 위험구간 3개소의 선형 등을 개선했다.

태권도원으로 진입하는 주도로인 이 구간은 급경사와 선형 불량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지역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재용 기자

사고위험이 높았던 태권도원 진입도로의 개선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의 성공 개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원국토사무소는 위험구간 개선사업 마무리와 함께 인근 진입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실시했다.

모든 구간에 대한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물과 표지판 정비, 터널 및 갓길 청소도 마무리했다.

남원국토사무소 정복수 소장은 “태

권도원 진입 위험도로 개선사업 마무리와 안전시설 정비로 태권도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남원국토사무소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전북 동부지역 6개 시·군의 국도(1=428.3km)와 국가하천(섬진강)을 관리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 예담채,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참여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전북 원예농산물 공동브랜드 '예담채' 및 '6차산업 인증제품' 홍보를 위해 15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이번 홍보관 운영은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전북 대표 우수 농산물과 6차 산업 우수제품 홍보를 통해 수도권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가 품목으로는 사과, 배, 복숭아, 수박, 토마토를 중심으로 방울토마토, 고구마, 메론, 파프리카, 블루베리,복분자, 오미자, 아로니아 등 총 20여개 품목과 6차산업 인증을 받은 7개 경영체 26개 품목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홍보관은 시시 가능한 전 품목으로 대대적인 시식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수도권 소비자들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 있다. /인재용 기자

### 한전 전북, 에너지 신사업 도입 현장 벤치마킹 시행

한국전력 전북본부가 지난 8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도내 주요기업 에너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 에너지 신사업 도입 현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력 전북본부에서 도내 기업들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유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70여개 기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으며,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력 신사업 홍보관을 찾아 미세먼지 정화 기술, EMS(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신기술의 발

전상황을 확인하고, IS산전 스마트 공장을 찾아 신기술의 현장 적용사례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 참석자들은 “에너지 신기술 현장 적용을 통해 생산성 개선과 에너지 효율을 함께 달성하는 스마트 기업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전북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의 위상 제고는 물론 도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신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제조업 기술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 한국무역협회, 유망 바이어 초청 종합상담회 개최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는 15일 전라북도 수출 재도약을 위한 국내·외 유망 바이어 초청 종합상담회를 개최했다.

무역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와 공동으로 롯데마트 등 4개의 전문무역상사를 초청해 20개 전북 제조업체와의 상담을 주선했다. 특히 무역전문가의 전문컨설팅 및 세미나도 동시에 제공해 참가기업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북생물산업진흥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는 전북 바이오화장

기능식품)계의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열었다.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10명의 바이어와 25개 전북업체들이 상담을 추진했다.

김영준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장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무장한 전문무역상사 및 해외바이어를 통해 우리 전북 기업들에게 보다 수월한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코자 한다”며 “참여 기업들이 바이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유익한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어르신 대상 금융교실 실시

금융감독원 전주지원과 전북은행은 15일 서원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소외계층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이 금융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대응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은 통장관리, 예금·대출·보험가입 등 금융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지식과 투자사기·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사례와 피해 발생시 대응요령을 설명

했다. 또한 전북은행은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사랑한가득 주먹밥' 행사를 실시해 주위의 어르신들에게 한끼의 식사를 제공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관계자는 “금융거래시 계약 관련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금융에 관해 궁금한 것은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포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www.jjnh.co.kr

##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장미



호박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중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상경,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용,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중앙회